

# 국내 대학기록물 관리의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he Current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in Korea.

배 순 자(Soon-Ja Bae)\*

## 초 록

본 연구는 기록물의 중시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기록물 관리업무가 현재 어느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한 국내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관리 업무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사결과 매우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록물관리를 독립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전 대학의 20%수준이며, 대학별로 차별화된 특별 방법에 의해 기록물자료를 운용 혹은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한 건도 없었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level of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After research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records in all universities in Korea, focusing on the institution and the operation, the inactiveness of the management was pointed out: only 20% universities of all keep managing and utilizing the archives, and none has a plan for a special application of its archives.

키워드: 기록물, 기록물관리, 대학기록물, 대학기록물관리,  
대학기록물운용, 대학기록물보존소  
archives, archives-management,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sjlbae@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9월 6일

## 1. 서 언

우리나라는 일찍이 인쇄술의 발전국으로, 목판 인쇄술을 비롯하여 활자인쇄술을 통해 세계최초의 기록물을 생산함으로써 창의력과 열을 지닌 기록문화의 우위국임을 확인받고 있다. 그 결과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시심체요절 외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기록물 생산과 보관에서는 실록편찬을 통해 이미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갈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제하의 치욕적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기록물자료의 보관과 관리에서는 미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겪은 역사적 아픈 경험으로 인해 귀중한 문서일수록 보관을 기피하고, 증거를 소멸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져 기록문화를 자랑하던 우리가 기록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미개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러나 1998년 12월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혹은 현실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기록물에 대한 그간의 일반적인 견해란 현용성이 없는 오래된 역사적 자료 혹은 고문서로서, 원형의 손상 없는 상태로 보존되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유지시키려는 대상물이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이행되는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은 기록물에 대한 인식 또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

적 여건으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후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기록물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며, 이는 정부기록물을 비롯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갖는 중요한 기록정보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기록물과 관련하여는 전자정부 구현의 한 축으로서 이를 취급하게 되어, 종전의 사무관리 차원에서 보존을 강조하던 기록관리 업무를 이제는 활용을 중시하여 새로운 기록관리제도의 정착과 운용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정부기록물의 관리업무는 이미 100 여개의 기관에서 자료관을 설치 혹은 준비중에 있으며, 2004년부터는 선진적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본격적인 시행을 고시한 바 있다.<sup>1)</sup>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학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기능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학술성과 중립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늘 기대되고 또한 요청되고 있다. 기록물에 있어서도 대학은 그 본래의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강희천 1996).

대학기록물이 갖는 여러 가지의 가치와 활용성 중에서도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학의 역사적 증거물이 되어 그 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 자료가 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후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니게 될 것이다. 이처럼

1) 기록물관리의 족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711개 기관, 41600처리과, 420만 단위업무에 대한 관리기준을 2003년 9월에 행정부 정부기록물관리소에서 제정 고시한 바 있음.

역사성과 증빙성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대학기록물에 대해 국내 대학들의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대학기록물 관리에 대한 향후 노력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이 기록물자료가 갖는 정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결과, 기록물의 관리업무를 위해 대학 내에서 어느 수준으로 그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의 범위는 국내의 전 대학이 되며 조사의 방법은 편의상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대학 중 종합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대학 내에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구의 유무를 파악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는 독립된 조직과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어느 조직보다 학술성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시켜야 할 대학이 그들의 기록물관리를 통해 얼마나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향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 된다.

## 2. 대학기록물관리의 배경과 발전

### 2.1 대학기록물 관리의 배경

기록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史料로서의 일기 따위와 같은 자료”, 혹은 “일이 되는 모

양을 적은 書類”라 하였다. 한편 영어로 표현되는 “records”의 단어는 ‘공공기록물(public records)’ 혹은 역사적 기록물(historical records) 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서 본다면 기록물이란, 현재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행정적 기능과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마땅히 보존이 중시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특히 행정자료로서의 기록물은 알권리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회성을 갖는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개의 의무를 실현하려는 대상이 된다. 뿐 만 아니라 그것의 보존으로부터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보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갖도록 한다. 한편 조직의 설립과 그 기능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에는 그 조직에 대한 귀중한 역사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갖게 된다.

기록물이란 용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적 쓰임을 보면, “公共機關이 業務와 관련하여 生産 또는 접수한 文書·圖書·臺帳·카드·圖面·視聽覺物·電子文書 등 모든 形態의 記錄情報資料”(기록물관리법 제2조 2항)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록물을 행정적 자료라는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기록물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것이 갖는 자료로서의 활용성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수준과 의미를 가지며 또한 기록물의 생산처에 따라서도 일률적일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대학기록물이란, 기록물을 그 생산처에 따라 구분한 명칭으로서 그것이 갖는 자료로서의 가치와 기능은 타 공공기록물의 그것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각 공공기관이 갖는 행정의 차이와 사회적 기능과 책임에 따라 기록물관리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며 또한 자료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대학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행정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대학내부의 각 활동 뿐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록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어느 공공기록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주요한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수준 높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대학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이 이렇듯 증빙의 목적이거나 혹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하나의 기록물로서 취급되어 그 보관으로부터 유용성을 지니게 된 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연유를 갖고 있다. 기록보존기관의 기원을 따지자면 고대 그리스문명기로부터 거슬러 갈 수 있으며 당시에는 귀중한 자료는 神殿이나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한 엄중한 관리의식을 엿볼 수 있다 (Schellenberg, T.R. 1956).

서양에서의 대학기록물 관리기구는 대부분 대학의 행정문서를 중심으로 史料를 수집 보관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작되어 현실적인 목적을 갖는 증거용의 활용성을 갖는 기능으로 출발하였다. 中 近世期の 유럽 대학에서부터 그 출현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 대학기록물의 관리제도는 대학의 존립과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 대학기록물은 대학의 사료로서 그 중요성이 높았으며 특히 당시 각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시작한 대학사의 편찬작업에 그 기록물들을 활용함으로써

대학기록물의 관리기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대학사의 편찬 작업이 대학기록물 관리기구의 정착에 작용하게 된 대표적 예로는 일찍이 포르투갈의 대학들에서 볼 수 있다. 15세기 중반에 이르러 포르투갈의 대학들은 각 대학의 沿革史를 편찬하고자 대학사 자료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때부터 대학에서는 대학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립 정리하기 위한 전문적 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김기석 1995). 이처럼 대학기록관의 설립동기에는 대학기록물을 통해 국가의 지적활동에 대한 핵심내용과 그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역사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 2. 2 대학기록물관리의 발전

서양에서의 대학기록물 보존업무가 발전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1950-6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겪으면서 많은 대학들이 풍부한 재원을 가짐으로 주요 기념식을 기획하면서부터다. 대학들이 기획한 각종 기념행사에는 그 대학의 역사적 권위와 사회적 위치를 상징할 수 있는 대학사 편찬이 포함되어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곧 대학기록물보존소로 이어진 것이다.

대학사의 편찬 작업으로부터 시작된 대학기록관의 설립경향은 1960년대 초에 이미 미국의 경우, 350 여개의 대학 중 113개 대학에서 대학기록물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1962년 SAA Committee 조사<sup>2)</sup> 이후 1979년에는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es)가 주동이 되어 미국의 대학사고를 위한 지침

2) 이 조사는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이다.

(Guideline for University Archives)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전 대학의 80% 이상이 전담 기록관리기구가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김기석 1995), 1980년대에 이르러는 106개의 대학 중 100개교 이상의 대학에서 기록관을 설치하게 되었다(유숙근 1996).

1636년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대학의 주요 기록물을 大學史庫(university archives)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버드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록물관리 대학으로 꼽힌다. 국가의 기록관리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학 자체의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상설전담기구로서의 대학기록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대학에서는 1995년에는 대학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학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대학사고에 위임하였다. 또한 대학 당국으로부터 법적 행정적 권위를 부여받은 대학기록물관리 담당자는 대학내 각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수집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全權을 지닌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학은 일반적인 행정자료에 덧붙여 주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에 까지 확대된 자료범위를 갖고 있다. 이렇듯 歐美의 대학들은 학교사 자료관리에서 더 나아가 大學史庫로서의 기록물관리제도에 의해 법적 행정적 권위를 가지면서 체계적인 대학기록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최정태 1999).

참고로 SAA의 Guideline for University Archive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기록물의 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sup>3)</sup>

①학위수여권의 근거를 보여주는 교황칙허장

등 보유 등에 의한 대학의 설치·창립 등의 역사적 경위를 증명하는 문서, ②도시의 법에 대항할 법적 근거를 보여주는 문서, ③학내 재판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한 문서의 보존과 ④교회·제후들의 기부에 의한 토지 기타 대학 재산을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대학기록의 필요성에 의하여 대학의 기록보존이 중시되었다.

대학기록물의 의도적인 수집과 보존업무가 시작된 동기는 동서양이 서로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다. 대학의 개교기념행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학사 편찬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대학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대학의 기록물 수집 보관함으로써 기록물보존소의 설립이 요청된 동기는 東과 西과 마찬가지로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경대학의 경우는 학교 백년사 편찬사업의 결과 수집된 대학 관련 자료를 후일까지 보존하고자 대학 기록물보존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후 일본에서는 大學史 편찬을 계기로 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보존·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한편, 대학사 편찬에 사상사, 정신사, 사회사 등의 방법론을 도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반영되어 대학 기록물보존소가 영구적 시설로서 각 대학에 설치되었다(김정남 역, 1999).

### 3. 대학기록물 관리의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은 기록물관리법이 통과된 이후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3) SAA 홈페이지 참조.

관점에서 중시하게 되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전적을 비롯하여 기록물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기록보존의 역사는 멀리까지 거슬러가, 삼국시대의 太學과 扁堂 및 冊業, 國學 등으로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공문서를 비롯하여 개인들의 재산보유를 위한 사문서에 이르기까지 후일의 행정적 참고와 증빙자료로 활용하려는 체계적인 준비가 남달랐다. 그러나 일제기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공문서 결재권의 찬탈은 이후에 중요 문서의 폐기와 보관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우리의 기록물 보존문화는 크게 훼손을 당하여 왔다.

대학기록물 관리의 역사를 보면 이 같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는 서양에 비하여 매우 짧다. 서양에서의 대학기록물관리의 전개는 먼저 기록보존소의 존재와 소장자료를 알리는 홍보기인 1단계와 자료확보기인 2단계를 거쳐, 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돕고 대학별의 차별화된 특성을 살리기 위한 기록물자료의 효율적인 조직에 관심을 두는 발전기에 이르러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작의 동기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사편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작 동기에서는 비슷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기록물 관리제도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은 이후 국내의 각 대학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1999년 12월에 제정되고 2001년 1월에 그 시행을 본 기록물관리법으로 인해 국내의 대학들은 기록물관리를 빠르게 추진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진전의 수준이 현재 어디까지 이르러 정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과, 또한 향후의 그 발전대

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 목적으로 국내의 대학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1 조사의 진행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토대로 하여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이 대학기록물관리의 정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고 아울러 현 국내의 대학기록물관리 실태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진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조사는 국내의 4년제 종합대학에 대한 全數照査를 계획하여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대학에 대한 조사는 먼저 2005년 2월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된 종합대학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공립대학교(시립대, 교육대학, 사관학교 포함)가 49개교와 사립대학교 202개교로서 총 251개교이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한 1차 조사에서는 대학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구조직의 존재여부, 관련 규정의 여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국내의 대학기록물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알고자 하였다.

그 다음 2차 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의 업무가 정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업무의 수준과 업무형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 대학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업무적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의 조사에서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가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 3. 2 조사의 결과

#### 3.2.1 관리기관의 설치현황

대학의 기록보존 업무는 대학의 역사를 분명히 하고 대학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문화의 역사로는 우리보다 훨씬 뒤진 미국만 하더라도 이미 1997년에 대학기록물보존소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고 1980년대에 전 대학의 반 이상이 大學史庫를 갖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대학기록물보존소의 설치현황은 앞서 조사진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全數照査로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한 기본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결과이며 각 대학의 기구조직과 교내 규정집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 1) 대학기록물관리 업무기구 현황

기록물보존소의 설치현황에 포함된 사항으로 먼저 기록물관리를 위한 업무기구의 상태로서, 그 구분은 독립기구/단위부서/문서관리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직현황을 나타내었다. 이 중 '독립기구'의 경우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독립기구를 조직하고 있는 대학을 말하며, '단위부서'란 독립된 기구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의 독립기구에

서 기록물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편제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독립규정집이나 기록물을 위한 전시설을 갖고 있거나 또는 관련 기구의 규정집에 기록물관리 업무를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대상이 된다.

한편 '문서관리'의 경우는 대학 내의 기록물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대학 내의 기존 부서인 기획실이나 혹은 총무부서에서 행정자료로서의 기록물을 현행문서로 취급하여 관리하는 대학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기록물관리 업무가 시행되지 않는 대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유형으로 구분된 대학 중에는 5개 대학의 경우, 「문서보관보존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문서관리 내에서도 현용문서와 다소 구별되는 관리를 하고 있는 대학이 포함되었다.

#### 2) 대학기록물관리 규정집 현황

대학기록물의 관리현황에 대한 다음 사항으로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규정집의 상황을 알고자 하였다. 규정집과 관련된 상황을 알고자 한 이유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독립기구로 편성하지 않고 편제업무로 시행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를 독립된 규정에 의하여 일관된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함에서다.

〈표 1〉 대학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기구의 현황

구 분	독립기구	단위부서	문서관리	계
국립대학	3	26	20	49
사립대학	4	28	170	202
계 (백분률)	7 (2.8)	54 (21.5)	190 (75.7)	251 (100)

(백분율은 대학전체에 대한 비율을 말함)

〈표 2〉 대학기록물 관리 규정집 현황

구분	독립규정	도서관규정		박물관규정		사무국규정 부속**	계
		독립 <sup>+</sup>	부속 <sup>++</sup>	독립 <sup>+</sup>	부속 <sup>++</sup>		
국립대학	11	4	3	6	3	2	29
사립대학	10	8	1	10	3	0	32
계(백분율)	21 (8.36)	12 (4.78)	4 (1.59)	16 (6.37)	6 (2.39)	2 (0.79)	61

<sup>+</sup> 독립: 독립 규정집은 없으나 해당 규정집에서 독립 업무로 지정된 경우

<sup>++</sup> 부속: 해당 규정집에서 부속업무로 포함된 경우

〈표 3〉 기록물관리 업무의 행정적 소속

구분	직속	도서관	박물관	홍보관	사무국(총무처)	계
국립대학	3	1	1		6	11
사립대학	3	2	3	1	1	10
계(백분율)	6 (28.5)	3 (14.3)	4 (19.0)	1 (4.8)	7 (33.3)	21 (100)

〈표 2〉에서 나타낸 이 조사의 결과는 독립된 규정집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와, 도서관 혹은 박물관규정이나 사무국규정에 대학기록물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독립 규정집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규정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독립시키고 있는 경우와 부속업무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그리고 계의 백분율은 조사대상이 된 국내 전 대학 251개교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대학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집의 현황을 알기 위해 조사한 결과, 위 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전 대학 중 어떠한 유형으로든 대학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총 61개 대학으로서 24.3 %의 수준이다. 이 중 대학기록물관리를 정기적인 독립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대학은 총 49개 대학으로서 약

19.5%의 수준이 이른다. 여기에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독립기구가 조직된 대학과, 독립기구는 없으나 독립된 규정(21개교:8.36%) 혹은 관련된 기구의 규정내에서 독립된 업무로 포함시키고 있는 대학(28개교:11.15%)이 포함되어 있다.

3) 대학기록물 관리업무의 소속현황

대학기록물 관리업무를 위한 조직의 소속은 해당 업무의 독립성이나 대학 행정에서의 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수준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조사는 〈표1-2〉에서 보여준 내용으로는 정확한 대학기록물 관리의 업무 소속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독립기구로 조직된 경우에도 그 소속기관은 다양했으며 또한 독립 규정집을 가진 경우이라도 기구상으로 독립되지 않은 대학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는 독

립기구 혹은 독립규정집에 의해 대학기록물 관리를 독립체제로 운영되는 대학인 21개 대학들만 해당이 되어 그 구체적인 소속을 나타낸 것이다.

기록물관리 업무를 독립된 체제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그 업무의 행정별 소속 현황을 보면, 독립기구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총장 또는 부총장 직속이거나 홍보관 혹은 사무국 등 소속이 다양하다. 한편 독립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독립체제인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대부분은 행정부처 소속으로 두는 경향이며 교육대학은 전부 이에 해당된다.

4) 대학기록물 관리 기구/업무의 명칭

대학기록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이들 업무에 대해 붙여진 기구나 부서 또는 업무의 명칭을 알고자 하였다. 이는 그 명칭으로부터 관련된 업무의 범위와 내용 및 수준을 알고자 함이며 각 명칭은 해당 업무의 소속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물관리 기구의 명칭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업무를 위한 독립기구나 단위부서로 조직된 대학, 기록물관련 업무를 위한 독립규정집이 있는 대학, 독립규정집은 없으나 해당 부서의 규정에 독립업무로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독립 전시실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상이 된 대학들은 조직상으로는 수준별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기록물 관리의 업무를 독립된 형태<sup>4)</sup>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곧 <표 2>에서의 대상보다는 다소 축소된 총 49개 대학이다.

<표 4> 기록물관리 기구/업무의 명칭

소속처	명칭	대학수		계	
		국립	사립		
독립기구	기록보존소		2	2	
	기록관		1	1	
	역사관		1	1	
	역사자료관		1	1	
	교사자료실	1		1	
	대학자료관	1		1	
총무처 (사무국)	자료관	8		8	
	기록물관리센터		1	1	
박물관	역사자료실		1	1	
	교사자료실		5	5	
	교사박물관	2		2	
	대학사료		3	3	
	학교사전시실		1	1	
	대학사자료	4	1	5	
	학교사자료		2	2	
	학사자료		1	1	
	학교역사실		1	1	
	대학역사자료		2	2	
	보존기록부		1	1	
	도서관	대학기록관	2		2
		대학사자료관	1		1
역사관실			1	1	
교사자료실		2	1	3	
	학교사자료실		2	2	
계		21	28	49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사용하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구 혹은 업무의 명칭은 총 19개 유형으로서, 이 중 가장 선호하는 명칭은 '교사자료실'(18.3%)이며 그 다음 순이 '자료관'(16.3%)의 수준이다. 명칭에 있어서 교육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교는 '자료관'이란 명칭을 선호하며, 사립대학교에서는 '교사자료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조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각 대

4) 이 형태란 독립규정집은 없으나 소속 부서의 규정집에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독립전시실 유지 등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의 경우이다.

학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란 대체로 그 대학의 역사적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보관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으며,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은 매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5) 대학기록물 관리의 시행연도

앞에서 알아본 국내 대학기록물관리 현황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들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업무의 준비가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으며 대학행정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문서자료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실정을 고려하여 국내의 대학들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별로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시작한 시행연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와 내용은 연도별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5>에서 각각 나타냈으며 특히 꺾음표를 볼 때 그 현상을 보다 더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 5> 대학기록물 관리를 업무 시행연도

구 분	1980년대	1990-1999년	2000-2005. 2	계
국립대학	2	4	16	22
사립대학	4	10	10	24
계(백분율)	6(13.0)	14(30.4)	26(56.6)	46(100)

\* 백분율은 독립업무의 형태를 갖는 대학 총 46개 대학에 대한 비율임.

기록물 관리업무의 시작연도에 대한 조사는 독립기구 혹은 독립규정집에 의해 기록물을 관리하거나, 독립규정집은 없으나 해당 부서의 규정집

내용에 기록물관리의 관련 업무를 독립된 형태로 유지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앞의 <표4>에서 나타낸 업무의 명칭별 조사에서 대상이 된 46개 대학에 대한 기록물관리 업무의 시행연도로서, 1999년 법제정 이후와 법제정 이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알도록 나타내었다.

조사결과 대부분(54.3%)의 대학들은 법제정 이후에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현저하여 현재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중 약 73%가 법 공포이후에 시작되었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제정으로부터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2 기록물관리를 위한 자료조직 현황

자료의 조직관리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달리 각종 문헌을 비롯하여 공공의 자료라 할지라도 활용보다는 보존에 치중하여 자료의 조직체계에서는 보관위주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자료들이 갖는 정보적 가치를 중시하여 그것의 활용과 공개를 위해 자료조직의 방법을 개발하고 보다 수월한 이용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자료조직의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나 문서를 비롯한 기록물자료에 대해서는 앞의 명칭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아직까지 보존중심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후 각종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자료에 대한 관리지침

에 따라 기록물자료가 갖는 증빙의 효과 외에도 이들 자료가 지니는 문화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의 활용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기록물에 대한 조직체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본 조사에서는 대학기록물에 대한 자료조직의 현황으로, 대학 내의 기록물자료를 하나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 취급하여 전문관리자로 하여금 그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과 정리과정을 거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먼저 대학기록물의 자료범위와 자료의 수집계획을 비롯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전문적 정리의 여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한 조사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위한 각 대학별의 규정집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 3.2.1 대학기록물 자료의 범위와 수집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기록물 관리가 시작된 배경은 다른 일반적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교사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서이다. 대체로 특정 업무의 시작 배경은 그 업무의 중요성과 발전속도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내의 대학기록물 관리체계에서 기록물자료의 범위는 얼마나 확장되었으며 또한 체계적 수집계획의 여부에 대한 파악은 국내 대학기록물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물자료의 범위는 법률 제2조(정의)의 2항에서 지정하기를,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도서·臺帳·카드·圖面·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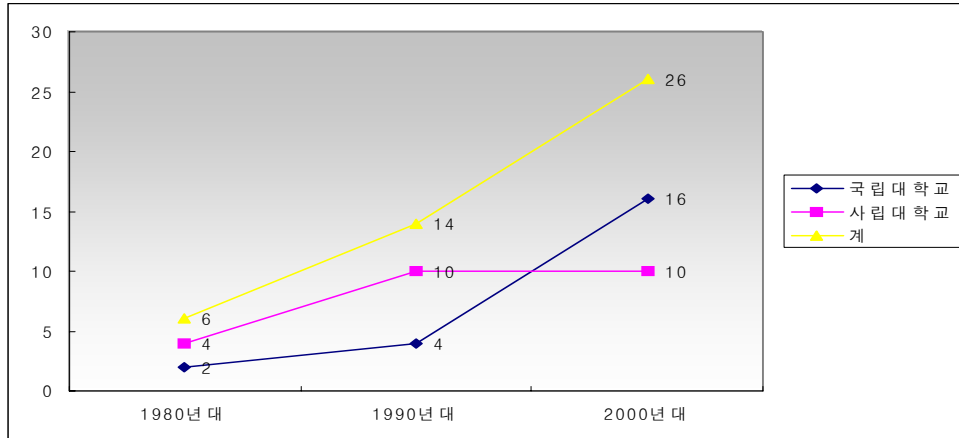
보자료”라 하였다. 이에 덧붙여 각 공공기관별의 구체적 기록물자료의 범위가 범조항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기능과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기록물의 범위는 대개 일정할 것이다.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 및 봉사를 핵심으로 함은 동과 서를 막론하여 거의 일치되며,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들 기본적인 기능이 더 강조되거나 확대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학기록물의 자료범위는 내용별로는 대학의 기원과 발전 및 업적에 대한 증거자료, 대학구성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록물,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동문에 관한 자료 등이며 그 표현된 형태별로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정보자료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특별한 개교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록보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세기 중반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기록보존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대학에서는 대학의 역사와 활동을 증거할 만한 광범위한 자료들로서 공식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출판물을 수집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기록물 관리의 발전기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는 각 대학별의 특수집서에 의해 대학간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호 2000).

본 조사에서는 기록물자료의 범위 및 자료수집 계획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 대학사료 외에 ①지역자료나 동창회 자료의 포함여부, ②공동협력에 의한 자료수집의 계획 및 특정 주체의 자료 ③기록물자료에 대한 대학 내 납본정책의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국내의 대학 중 독립된 규정에 의하여 대학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표 5〉 연도별 대학기록물 관리 업무 시행건



19개 대학들 모두 대학의 역사자료를 수집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별의 차별화를 위한 특수집서는 한 대학도 없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역 자료의 수집과 공동협력을 통한 수집계획은 한 건도 없으며 동창회자료를 수집범위에 포함시킨 대학은 4개 대학, 대학 내의 납본정책을 통해 기록물자료를 수집하는 대학은 6개 대학이다.

### 3.2.2 대학기록물자료의 정리

일반적으로 자료조직의 범위에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과정이 핵심과정으로 포함되며 그 과정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은 자료를 관리하려는 목적과 밀접된다. 따라서 대학기록물의 정리는 곧 그 대학에서 기록물자료를 어떤 목적에서 관리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또한 기록물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향후 국내의 대학들이 기록물자료의 관리에 대한 지원 의지를 추론케 하는 기초적 정보가 될 것이며, 조사내용으로는 분류와 매체전환에 관한 것을 포함시켰다. 분류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적용, 혹은 대학별의 독립된 분류시스템을 유지하는가의 여부와 그 분류표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록물자료를 위한 별도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하며 분류표의 명칭은 다소 일관되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기록보존분류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사자료분류표’이다. 한편 기록물자료의 매체 전환은 21개 대학에서 모두 전산화에 의해 자료의 보관과 운용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 대학기록물의 운용

기록물관리법에는 총칙으로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및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기록물 자료의 특성이란 보존이 중시되고 공개되지 않는 자료로서, 공개와 이용에 집중되는 정보자료에 대한 반대개념의 자료를 의미하였다. 다행히 기

기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의 자료에 대해 문화적,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고 상호교류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와 전문화가 유지되기를 법률 제 24조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들 자료에 대한 운용의 방향이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조명되는 기록물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기록물 자료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내용으로는 기록물을 위한 관리업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자료의 공개여부 및 상호교류에 의한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포함시켰다.

조사의 결과, 국내 대학들의 기록물자료에 대한 운용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 대학이 11개 대학이었다. 이는 독립규정에 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대상인 21대학 중 약 53%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체로 전문적 업무로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록물자료의 공개는 규정상 허용을 원칙으로 하나 회귀자료나 귀중자료 및 박물관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하는 편이며 대학간 혹은 지역의 공공기관간의 공동협력을 통한 어떠한 이용방법도 강구되지 않는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 3. 4 대학기록물 관리현황의 종합적 분석

\* 251개 대학 중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기구의 현황을 보면 독립기구로 설치된 대학이 7개 대학(2.7%), 단위부서의 편제업무로 포함시킨 대학이 54개 대학(21.5%)이다. 이는 기록관리법

의 제정을 발판으로 이제 막 대학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의 시작기에 불과한 수준이라 하겠다. 1979년에 대학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1980년대 초에 이미 80%이상의 대학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독립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규정집을 마련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은 21개교(8.36%), 관련 기구의 타 규정집에서 독립된 업무로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30개교(11.9%)이다. 따라서 국내의 대학 중 약 20.7%에 해당되는 51개 대학에서 어떠한 유형으로든 독립된 업무로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편제업무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 중 도서관(9개 대학:18.3%)보다는 박물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향(24개 대학: 48.9%)이 강하다. 이와 같은 업무소속의 경향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물자료를 정보적 가치보다는 역사적 가치를 더 인정하는 인식임을 알 수 있다.

\* 기록물 관리업무를 독립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그 행정적 소속현황을 보면, 총장, 부총장 혹은 법인의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6개 대학이다. 교육대학 중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6개 대학 전부가 사무국 소속이며 사립대학은 1개 대학이 총무처 소속이었다. 그 외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또는 홍보관 소속으로 3/4/1개교 씩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의 규정집 현황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들이 기록물자료를 보관위주의 역사적 자료로 취급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 기록물관리 업무의 시작연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54.3%)이 1999년 기록

물관리법의 공포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그 비고가 더욱 뚜렷하여 약 72.7%의 국공립대학이 기록물관리법의 공포 이후인 것으로 보아 국가적 정책결정이 대학의 행정에 크게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 기록물관리의 업무(기구)명칭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역사자료(관)를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하며 명칭사용에서 대학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국공립대학은 단일한 명칭인 반면 사립대학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대학기록물 관리업무의 시작연도와 종합해 보면 '권장'과 '자발'이라는 대학간의 상이한 동기를 추정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대학기록물 관리는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대학사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규정집의 조사대상인 모든 대학이 자료의 수집범위와 목적으로는 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서양에서 볼 수 있는 지역자료 또는 주제별 특수 집서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대학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기록물자료의 조직 및 운용과 관련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대체로 해당 주제의 전문적 배경을 갖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어 기록물자료의 관리를 전문적 업무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자료에 적용되는 별도의 분류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행자부에서 고시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체전환을 통해 자료의 보관과 검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관리 중에 있는 전 대학에서 고려하고 있다.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 대학을 통해 기록물

에 대한 공동협력에 의한 수집이나 이용의 확대 노력은 소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 대학에서는 교내의 납본법에 의해 기록물자료의 수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4. 결 언

우리나라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보존역사는 삼국시대의 太學과 扁堂 및 冊業으로까지 거슬러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는 기록물 중시국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인쇄문화의 우위국이자 기록물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대학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현재 어느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기록물 관리업무의 조사로부터 국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의 내용은 먼저 대학기록물 관리업무를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조직현황과 규정집의 여부 및 기구/업무의 명칭을 조사하고, 그 다음 업무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조직 및 운용을 종합한 실태를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이 된 대학으로는 특수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공립대학이 49개 대학, 사립대학은 202개 대학으로 총 251개 대학이다. 이는 2005년 2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된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국내의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국내 대학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록물자료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기록물보존소의 설치에 대한 의지가 미진함으로써 그 설치의 현황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대학 중 기록물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사자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록물이 갖는 증빙적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기록물을 일반 정보자료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보관이나 보존 중심의 개념으로 취급하려 함으로써 기록물자료의 가치를 활용하려는 운용방안보다 보존중심의 자료관리에 치중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내 대학기록물 관리업무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통하여 그 발전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① 대학 기록물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황조사에서 분명하게 규명되는 것은 기록물자료가 갖는 문화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의 노력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기록물자료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다.

② 기록물관리를 편제업무로 조직할 경우에는 도서관 소속으로 편성함으로써 기록물자료를 보다 정보적 활용성을 갖는 자료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SAA에서 제정한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A Handbook에 포함된 관련용어해설집(Glossaries, ch. 12)에 archivist의 업무영역의 확장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명칭이 'records management', 'management curators', 'information management' 등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를 보더라도 기록물자료에 대한 취급은 이제 정보적 가치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록물에 대한 개념을

현대적 의미에서 취급할 것이 요청된다.

③ 대학간 혹은 지역의 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협력에 의한 기록물자료의 활발한 운용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대학기록물의 자료범위는 대학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벗어나 문화적 학술적 가치에 의한 활용성을 중히 여기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 소재의 대학들은 지역문화의 보존이라는 확대된 개념에서 접근할 것이 필요하다.

④ 대학기록물 관리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과 이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록물법이 제정 공포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으나 국립대학에조차 이의 적용에 대한 외부조치가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제정된 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⑤ 2004년 10월까지 완료되는 국가정보화 계획에는 정부기록보존소 및 각급 기관 문서과의 문서정보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다 행히 모두 전자화에 의한 매체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표준 전자결재와 유통시스템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록물자료에 대한 보다 수월한 접근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록물자료의 활용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기록물자료를 대상으로 달라지고 있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대학이 갖는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석. 1998. 기록을 확대하면 역사가 양값음한다: 대학 史庫의 존재이유와 사명, 『대학 교육』 98(10): 90-97.
- . 1995.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현지 조사결과 보고,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 사료실 연구보고서.
- 강희천. 1996. 대학의 기능: 그 도전과 대응, 『현상과 인식』 69: 35-55.
- 김정남 역. 1999. 대학사 편찬과 자료의 보존, 『도서관문화』 40(6):
- 김상호. 2000.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259-278.
- 유숙근. 1996. 학교사자료실 운영실태의 고찰, 『고문화』 48: 181-90.
- 윤영. 1998. "A Study on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117-128.
- 차창민. 2004. 대학역사기록관의 설립과 운영방안: 대학기록물처리 일정표의 제정과 활용을 제안하며,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학술대회논문집(미간행자료).
- 최명순. 2001. 기록보존과 대학도서관의 역할: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9집: 5-30.
- 최정태. 1999. 대학기록의 확립과 운영에 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 19.
- Bellardo, L.J. and Lynn Ladt Bellardo. 1992. *A Glossary for Archive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es.
- Cox, Richard J. 2000. "The Failure or Future of american Archival History: A Somewhat Unorthodox View," *Libraries & Culture* 35(1): 141-154.
-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A Handbook*. [cited 2005. 2. 10] <<http://www.archivists.org/>>
- Schellenberg, T.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SAA" [cited 2005. 2. 10] <<http://www.archivists.org/>>
- "Harvard University Aechives" [cited 2005. 2. 11] <<http://hul.harvard.edu/huarc>>